

# 新羅·高麗梵鐘의 新例(十二)

黃 壽 永

지난 數年間 地下埋藏物에 대한 不法의 盜掘은 차차 表面에서 자취를 잡추게 되었다. 그것은 官權의 監示가 秦劾함인지 또는 寺址에서의 두 드러진 出土物이 漸減됨에 따름인가. 이에 따라 靑銅小鐘의 出現도 激減함에 이르렀다. 필자는 「高麗梵鐘의 新例」(十二) 「考古美術」 一〇一號 一九六九年 三月)를 발표한 後 오늘에 이르키까지 約三年間 계속 新例의 出世를 注目하여 왔다. 그리하여 寺址에서의 出土新例로서 新羅 一口 高麗의 作品인 五口를 收拾할 수 있었는데 그중 在銘品은 三口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最大數尺에서 보통 一尺內外의 中小鐘뿐이었다. 그리고 特記할 것은 新羅末로 추정되는 中鐘一口와 비록 破片이나마 新羅作이 確實한 遺品(本文附錄)을 入手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出土地가 각각 淸州와 原州附近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아울러 特記되어야 할 것이다.

## 一、在 銘 品

(1) 太安二年銘 銅鐘  
이 鐘은 一九六九年 七月에 全南 麗川郡 雙峰面 麗山里 山二十一番地의 逸名寺址에서 出土되어 그후 國庫에 歸屬되어서 오늘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에 保管되고 있다.

通式을 따르고 있어 鐘頂에는 甬筒이 있고 四乳廓 各九乳와 上·下의 唐草文帶를 두르고 있다. 그리고 乳廓間의는 交代하여 菩薩坐像과 圓形

蓮花文撞座 各二座가 배치되었는데 鐘의 크기에 비하여 過大하다. 그리고 上帶와 接하여 鐘頂周緣에 蓮花文帶가 둘러 있는 것도 古代로서 注目할만 하다.

銘文은 乳廓下 한 곳에 四行縱書의 楷書體로 陰刻되어 있는데 다음과 같다. (字徑 一·五cm)

(이 外에 上帶에 接하여 「聖春天長」의 陽刻銘이 一行縱書되어 있다.)

長生寺金鐘重五十斤  
棟樑寺主重〇倡漢  
京戊〇正春元純納

十六斤太安二年十二月

太安은 遼 道宗의 年號로서 그二年은 高麗 宣宗三年(一〇八六)에 해당한다. 그리하여 이 鐘은 一九六七年 경기도 驪川郡에서 出土되어 國立博物館에 陳列된 淸寧四年(高麗 文宗十二年 一〇五八年)에 이어서



圖1. 乙丑銘 竹丈寺鐘

銘記가 확실한 作品이라 하겠다.

크기는 全高 五十一·七 cm 로서 中鍾에 속하며 鐘身高만은 三五·六 cm, 口徑 二六·四, 厚 一·八 cm 이다. 形態는 胴部가 多小 부르나 다시 口緣에서 緊縮되어 있어 新羅鐘의 遺影을 지니고 있으나 彫飾은 流麗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各部樣式을 具備하였으며 銘記가 있어 高麗前期의 一佳 作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종에 대하여서는 「考古美術」一〇九號 一九七一年三月刊에 당시의 扶餘博物館長 李永樂氏가 「太安二年銘 高麗銅鐘 和小鐘一口」라 하여 紹介한 바 있다.)

(2) 己丑銘竹丈寺鐘(圖版 1)

一九七一年初에 서울에서 初見한 것이나 出土地는 未詳이다. 甬筒은 基部를 남긴 卍龍鈕는 없어졌다. 高麗下代作의 通式을 지니고 있어 鍾高에 비하여 鐘腹部가 크다. 上·下帶에는 唐草文이 돌려 있는데 下帶에 비하여 上帶가 현저하게 좁으며 上帶를 돌아서 낮은 三角紋 突帶가 있다. 四乳帶는 各九乳이며 乳廓間 鐘腹 밑으로 下帶에 接近되어서 둥근 蓮花紋 撞座가 네곳에 비치되었을 뿐 單調하기도 하다.

銘文은 乳廓下에 다음과 같이 陰刻되어 있는데 楷書이며 字徑은 約 一·五 cm 이다.

己丑五月日竹丈寺住

持重大師伐菹棟椽

僧仁嚴羌州白[高]

三十同愿鑄成入重

六斤懸排大臣大夫

全高三三·五 cm 로서 通形을 보이는 小鍾인데 彫飾이 精巧하지는 못하다. 竹丈寺는 慶北 善山에 있었는데 「東國輿地勝覽卷二十九 善山佛宇條」에 「竹丈寺 在飛鳳山」이라 하였다. 오늘날 寺址에는 石塔 一基가 남아 있다. 年代는 十三、四世紀로 추정된다. (서울 張衡植氏 所藏)

(3) 扶餘博物館藏 論山出土 在銘小鍾(圖版 2)

全高一二一·八 cm 에 불과한 小鍾으로서 下徑은 十四·一 cm 요 上徑은 一〇 cm 로서 細長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圖 2. 扶餘博物館所藏 論山出土 小鐘

頂上에는 通式의 雙龍과 甬筒이 있으나 略化되었다. 上端周緣에는 三角立狀의 蓮紋帶가 있으며 上·下帶에는 唐草文이 새겨졌다. 乳廓은 鐘體에 비하여 過大한데 上帶와 分離되었으며 각기 花紋의 九乳가 있다. 그리고 이 四乳廓 사이에는 그와 나란히 菩薩坐像 軀二가 있으며 이와交代하면서 下帶에 거의 接近하여 圓形蓮花紋의 撞座가 또한 두 곳에 배치되어 있다. 銘文은 下帶위에 接하여 橫書一列로 두 곳에 陰刻되어 있는데 字徑은 約 一·五 cm 이다.

凍涼其三延三

大匠金守

全面에 靑綠色의 녹이 곱게 덮여 있어 매우 아름다운데 形狀의 아담함과 彫刻의 刻明함이 그 技法의 非凡함을 말하고 있다. 年代는 또한 고려 下代로서 十三、四世紀로 추정된다. 論山出土라고 하나 詳細히 알수는 없다. 이 銅鐘과 같이 破損된 在銘의 卍龍版①이 收拾되었는데 「癸卯八月十一日: 香定寺」라고 周緣에 一行으로 陰刻되어 있었다.

(一九七一年八月 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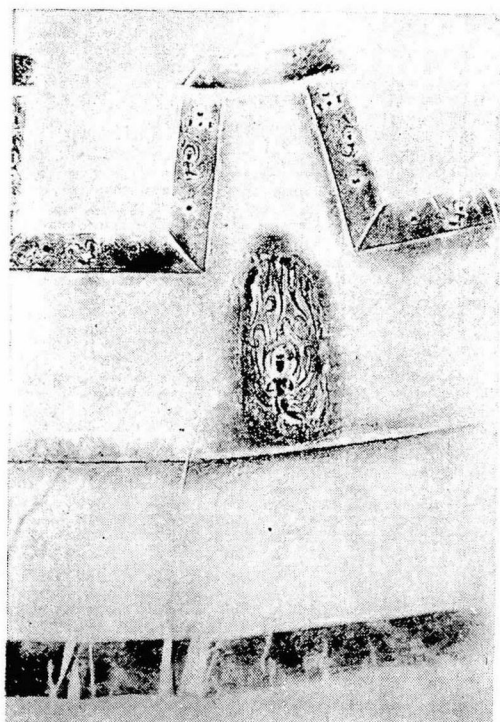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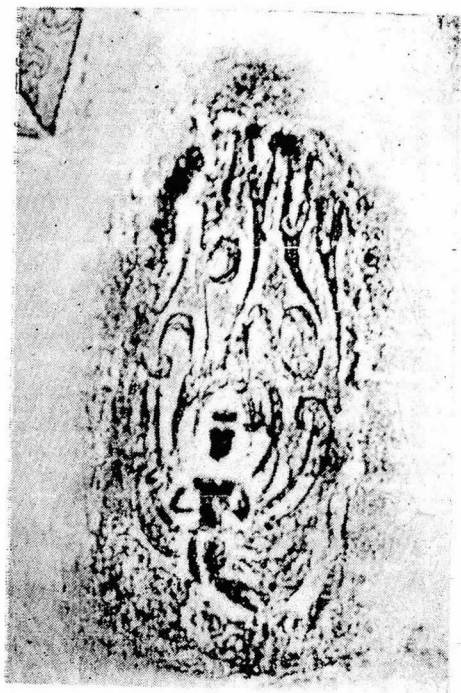


圖 3 清州出土 新羅無銘中鐘 (上右 飛天拓本 上左 銅鐘 下右 幢座拓本 下左 銅鐘拓本)

(1) 淸州出土 新羅無銘中鐘(圖版 3)

解放後 新羅의 貞元廿年銘 銅鐘一口가 一九四八年 江原道 襄陽郡 西面 米川里 禪林寺址에서 偶然하게 出土되어 國民을 歡喜케 한 바 있었다. 필자 또한 이 新鐘의 收拾과 調査를 위하여 苦心한 바 있었는데 그 出土場所가 三十八度線 以北 不過十里임과 深山幽谷에 있어 그 安全을 위하여 一九四九年 가을에 그 後方인 五臺山 月精寺로 옮겼었다. 그러나 不幸하게도 翌年 六月에 일어난 事變의 慘禍는 마침 이 新鐘을 全燒된 月精寺와 運命을 같이 하게 하였다. 一九五〇年 正月初 이 新鐘이 後方으로 搬移된 직후 當局의 鑑定 指示를 받고 緊張과 興奮을 누르며 酷寒中 二日의 行程으로 月精寺를 찾았는데 그 後 五日間 이 新鐘과 朝夕으로 而對하던 記憶은 오늘 生涯의 追憶이 되었다. 一九五〇年 一·四後退에 앞서서 이 深山中の 新鐘에 대한 適切한 對策을 세울 수 없었던 自身의 不察 또한 무엇보다 補償할 수는 없다. 그 後 필자는 항상 이 貞元鐘을 代身할만한 新例의 出世를 期待하여 온 것도 사실인데 이제 貞元鐘과 比較할만한 優秀한 巨作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사이 追加된 智異山實相寺境內出土의 新羅大鍾破品②에 있어서 新羅末期로 推定할 수 있는 無銘銅鐘一口가 出現한 것은 필자에게는 새로운 勇氣가 아닐 수가 없었다. 이 新鐘에 대하여서는 이미 公州博物館長 金永培氏에 의하여 同伴된 金屬品과 같이 매우 簡略하게 紹介된 바 있었다. (考古美術) 一〇五號 一九七〇年 三月刊 「淸州雲泉洞出土 金銅菩薩立像과 銅鐘」 그러나 年代에 대한 見解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差異가 있었기에 이에 同氏의 諒解를 얻어서 이곳에서 다시 紹介하는 바이다.

첫째 이 鍾은 鍾體에 비하여 鍾鈕部의 크기가 매우 작은 것이 注目된다. 龍形도 低小하며 甬筒 또한 이에 따라 倭小한데 甬筒(高九·五cm 徑四·八cm)에는 蓮花紋과 格子文의 裝飾이 있다. 이것은 龍鈕의 樣式과 크기는 上記한 新羅의 貞元銘 禪林院鍾 또는 日本出雲의 光明寺 소장

新羅銅鐘과 類似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이 鐘頂 周緣에 돌린 二線條와 一段의 隆起의 手法도 또한 光明寺鍾과 매우 相通함이 注目된다.

둘째로 上·下帶가 있으며 모두 素文으로 略化한 手法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上帶에 接하여 四乳廓이 네 곳에 배치되었는데 各九乳이 되 乳座가 있고 乳는 突起되었다. 그리고 乳廓帶에는 半圈안의 飛天紋을 주로 삼았으며 그 上·下에는 三寶文과 唐草文을 細刻하였는데 그 刻線의 纖弱함과 紋樣의 特色이 또한 그 時代를 말하고 있다.

끝으로 넓은 鍾腹에는 乳廓間의 下部를 擇하여 飛天文 二軀와 圓形撞座 二座를 交代하였다. 먼저 飛天은 五臺山 上院寺鍾以來의 飛翔形인데 밑에 雲文이 있으며 一軀는 비파를 奏樂하고 他一은 合掌像으로 모두 頭上에 天衣를 날리고 있다. 이 飛天紋 또한 上記한 日本 光明寺新羅鍾과 거의 同範이 아닐까 疑心될만큼 서로 類似함은 놀랄만 하다. 그 같은 類似點은 撞座紋이 또한 그러한데 이 撞座는 內外 二區로 나누어 內區에는 十二瓣의 蓮花文을 外區에는 唐草文을 彫刻하였다.

그리하여 鍾形의 細長함과 下線에서 緊縮된 樣式 및 各部樣式의 配置方式이나 그 彫紋의 鍾別이나 手法의 纖細함에서 이 新鐘의 年代를 新羅末인 九世紀—그後半으로 推定하여도 可할 것이다. 이것은 推定은 비록 銘記는 없으나 新羅銅鐘의 新例를 國內에서 追加할 수 있다는 點에서 그 뜻이 크다고 할 것이다. 또 그것은 比較資料로서 日本에 流轉된 光明寺鍾③이 있어서 類似함을 實物로서 보여 주는 것도 또한 奇緣이라 할 것이다. 필자는 一九六八年 三月 日本 松江市에 머무르면서 하루는 深山中の 光明寺를 찾아 終日 이 新羅鍾과 相對하던 記憶이 새롭다. 淸州는 新羅의 小京인데 오늘 그곳의 一寺址(淸州市內 彌勒寺附近)에서 當代의 梵鍾을 收拾하여 國立博物館에 陳列케 된 것은 또한 多幸이다.

新鐘은 거의 完在하였으나 鍾體一部에 損傷이 있으며 매우 輕微한 것이다. 鍾身高는 六十四cm 口徑은 四十七cm 龍鈕高는 十四cm이다. 全面에 푸른 녹이 얇게 덮여 있어 土中을 말하고 있다. 이 銅鐘과 같이 金



圖 4. 公州博物館所藏 清州出土 小鐘

銅菩薩立像一軀(佛身高一〇cm)와 金瓶一口④가 同伴되었는데 前者는 또한 羅末의 作品으로 보이며, 後者는 己丑銘이 있어 高麗의 作으로 추정된다. 이 같은 出土狀況에서 미루어 아마도 近世에 이르러 廢寺의 悲運을 맞아서 이 같은 寺寶類가 一括하여 埋藏된 것으로 추정된다. 上記한 貞元銘의 新羅宗 또한 廢寺에 있어 慎重한 配慮로서 埋藏된 사실은 鍾周에 木炭을 넣어 그 保存을 念願하였던 사실에서도 알 수가 있다. 近年의 金屬收集의 流行이 또한 이 新羅鍾의 出世를 促進하였던 것일까. (一九七〇年 四月 조사)

(2) 公州博物館所藏 清州出土 小鐘(圖版 4·5)

一九七〇年 六月 五日 忠北 清州市 수동 운암산 六번지에서 肅宗명 卍外 一名(住所 清州市 수동 二七番地)에 의하여 發見된 아담한 小鍾이다. 各部가 完全할 뿐 아니라 彫飾이 우수하고 形態가 또한 아름다운 것이다. 近來에 드문 新收品の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頂上의 龍鈕와 甬筒은 鍾身高에 比하여 特大한 느낌이 있다. 龍鈕는

입과 左足에 如意珠를 지니고 있으며 甬筒에는 他例와 달리 마디(節)가 없고 螺旋文으로 감았으며 頂上에는 八瓣形이 있고 그 끝에 寶珠가 달려 있다. 上·下帶에는 唐草文이 새겨 있는데 上帶위에는 다시 낮은 三角文立帶가 둘러 있다. 乳廓은 네 곳에 있어 各九乳이며 乳廓間의 鍾腹에는 交代로 菩薩合掌立像과 등은 蓮花文 撞座가 各二座씩 배치되어 있어 通式을 따르고 있음을 알겠다.

全高 三五·五cm, 鍾身高 二五·一cm, 上徑 一五·六cm, 下徑 二〇·八cm, 下厚 一·五cm (一九七二年 八月 二十日 조사)

(3) 李秉喆氏 소장 中鐘(註 五)(圖版 6)

高 六十二cm의 中鐘으로서 一九六〇年代에 寺址에서 出土되었다고 추정된 關係知其를 알 수 없다. 크기에 비하여 各部의 配案이 整美하지 못하고 彫刻도 鮮明하지 않다. 形態는 鍾高에 비하여 下部로 擴大되어 있어 鈍厚한 느낌이 없지 않다. 龍鈕나 甬筒이 모두 通式을 따랐으며 筒化되어 있다. 上帶 위에는 花紋立華帶가 둘러 있다. 上帶는 寶相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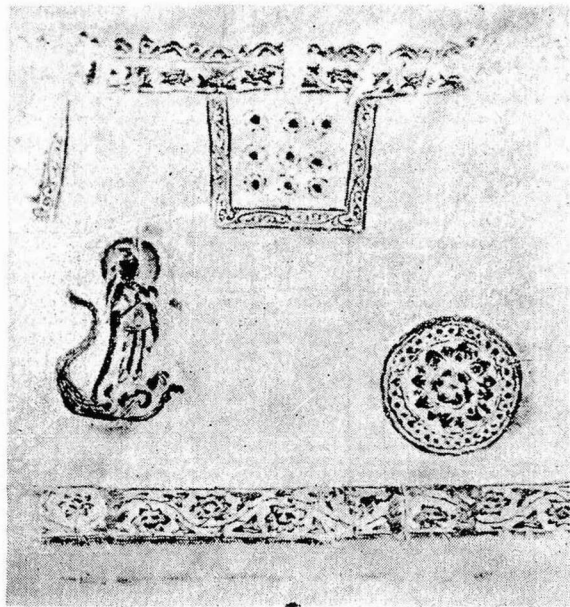


圖 5. 清州出土 小鐘 紋樣 拓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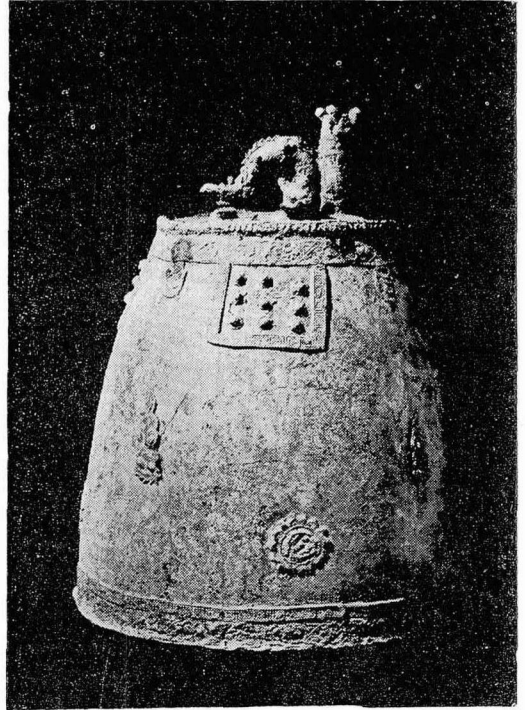


圖 6. 李秉喆氏 所藏 中鐘

草紋이, 그리고 下帶에는 雷紋과 또한 寶相唐草紋帶가 돌려 있다. 乳廓은 네 곳에 上帶와 接하였다 비교적 작은 편이며 九乳는 通式을 따른다. 그리고 他例와 다른 것은 乳廓間에서 上帶에 接하여 梵字가 各一字씩 세겨져 있는 것이다. 다시 鍾胴의 乳廓下部에는 둥근 蓮花文撞座計四座가, 그리고 다시 乳廓間에는 그보다 下部에 菩薩坐像 各一軀가 交代로 배치되었는데 이들 또한 過小한 느낌이 있다.

年代는 十三, 四世紀頃으로 추정되는 바 上徑이 二九cm, 口徑 四八·六cm이다.

(4) 國立博物館所藏 楊平出土中鐘

높이 七〇·五cm에 달하는 中鐘인데 또한 埋藏物로서 一九六七年十一月 경기도 楊平郡 砥提面의 石佛驛前의 古寺址에서 出土되어 마침내 國庫에 歸屬된 것이다. 銘文이 없으나 高麗後期鐘의 一佳作이라고 할 수 있다.

通式을 따라서 鐘頂에는 雙龍과 甬筒이 있는데 甬筒에는 斜格子文이 있으며 上端에 七珠가 돌려 있다. 그리고 鐘頂을 돌아서 三角의 蓮花文



圖 7. 慶州 天恩寺出土 小鐘

立帶가 있다. 上帶는 上下에 連珠文帶가 있고 唐草文을 세웠으며 乳廓은 네 곳에 있어 唐草文을 돌리고 九乳가 배치되었다. 鍾腹에는 乳廓間을 擇하여 둥근 撞座二座와 飛天二軀가 交代하였다. 끝으로 下帶는 上下에 連珠文帶가 있으며 그 사이에 半圈文이 있는데 그 以外에 對稱으로 蓮花圓瓣紋 各一座가 배치되어 있다.

各部의 彫飾이 洗鍊되지는 않았으며 鑄造 또한 疏忽하다. 形態에 있어 甬筒이나 乳廓의 크기가 過大한 느낌이 있다. 年代는 또한 十三世紀로 추정되는 바 紋樣중 半圈文이 있음을 注目할만 하다.

이 鍾과 같이 貞祐十年(高麗 高宗九年 一二二二年)의 翠嶺寺飯子(徑 五二cm)一座가 同伴되었다는 바 이 鍾의 年代를 推定함에 參考되어야 할 것이다. 鍾體 곳곳에 鐵鏽가 보인다.

口徑 四十四·五cm 鍾身高 四八·五cm 甬筒高 二〇·三cm (一九六八年四月 調査)

(5) 扶餘博物館所藏 扶安出土 小鐘⑦

一九七〇年二月 全北 扶安郡 扶安面 남포리 五二〇番地에서 出土되

어 國庫歸屬되어서 현재 國立博物館 扶餘分館에 保管되어 있다. 小鍾이 나 形態가 아름답고 彫紋이 鮮明하다. 특히 甬筒은 높는데 龍身이 筒體에 감겨서 特異한 手法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部分은 頂上의 三角帶나 上下의 唐草文帶는 通式을 따르고 있으나 鍾腹에는 오직 菩薩坐像一軀와 圓形撞座一座만이 對稱으로 배치된 것은 小鍾임을 證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全高 三三·四 cm 鍾身高 二二·四 口徑 十七 cm 厚 二·二 cm) 無銘이나 出土時 青銅鍾의 龍頭와 甬筒一개 (高 十三·二 cm)가 다른 青銅香爐 등 佛具類와 같이 同伴된 사실은 他 一口의 高麗銅鍾의 原在를 짐작케 함이 있다.

(6) 慶州 天恩寺址出土 小鍾 (圖版 7)

最新例로서는 一九七〇年 八月 十三日에 入手된 慶州市 南山塔洞 天恩寺址出土 小鍾을 들어야 할 것이다. 附近에는 傳逸聖王陵이 있으며 地下一 m 깊에서 나왔다 고 한다.

鍾身の 細長함이 먼저 注目되며 頂上의 樣式이 또한 特異하다. 龍鈕는 貫通된 甬筒을 中央에 두고 雙龍이 이것을 감고 올라갔으며 舍珠한 頭部와 兩足의 表現 등이 매우 巧妙하게 이루어졌다. 이 같은 龍鈕形式은 扶餘博物館에 소장되고 있는 扶安出土 小鍾에서 類例를 찾을 수가 있다 (本稿 無銘鍾 5)

肩帶는 唐草文을 細刻하였는데 그 上緣을 돌아 伏蓮과 三甬紋의 二帶가 돌려 있다. 乳廓은 네 곳에 배치되었으며 각 九乳가 花紋座에 突起되고 있다. 그리고 乳廓間의 下面을 擇하여 對稱으로 跪坐하는 飛天 二軀와 이의 交代하여서는 圓形의 蓮花紋 撞座 二개가 배치되고 있다. 그리고 乳廓 밑 下帶에 連接하여 立牌形 長方區域이 마련되고 있으나 通例를 따라 銘文을 찾을 수도 없다. 下帶 또한 寶相華紋이 돌려 있는데 이 下帶에서 特異한 것은 그 上緣을 따라 斜立狀葉紋이 돌려 있다. 小鍾이나 그 形態가 新羅鐘을 模하였으나 天人의 形式 또한 經주 聖德大王神鐘의 그것을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龍鍾의 形式이나 上緣의 三角立帶, 그리고 上·下帶紋 등에서 이 鐘의 年代는 高麗에 들어 十三, 四世紀의 것으로 推定되어야 할 것이다. 出土寺址는 羅·麗를 통하여 오랜

歲月 寺運이 계속되었음인지 近年에는 碑座 등 遺物의 發見이 있었다. 아담한 小鍾으로서 全面에 青鏽가 두껍게 덮였으나 매우 所重한 遺物이며 더욱이 經주地區에서 出土場所가 확실함에서 더욱 貴重하다. 經주博物館 소장으로서 이 鐘과 同伴된 出土遺品은 다음과 같다. 이 調査에서 朴日薰館長과 姜友邦學藝官 두분의 厚意가 있었다.

伴出遺物 ..

- (1) 青磁大接... 一點 低質少形 高二 cm 內外徑 九 cm 內外徑.
- (2) 青磁蓋... 三點 盒蓋인듯 徑 十 cm 內外徑.
- (3) 青銅少접시... 四點 매우 精巧한데 高一·八 cm, 徑 七·五 cm 로서 (1) 과 同形임.

(4) 青磁托蓋... 一點 가장 優品이며 內外에 花紋이 陰刻되어 있다. 끝으로 上記 小鍾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總高 二六·五 cm, 身高 二一·七 cm, 銅體外徑 一四·七 cm, 同內徑 一三 cm, 飛天長 九·一 cm (以上 慶博 姜友邦 報告에 의함)

(7) 서울 道鏡寺出土 小鍾

一九七二年 七月 二日 서울市 城北區 牛耳洞 道鏡寺 入口의 古庵址에서 出土되었다. 形態는 具存하나 鍾體에 龜裂이 있는 破品이다. 通式을 따라서 龍鈕와 甬筒이 있는데 甬筒上端에 小珠가 있는 것도 通例와 같다. 上下帶에는 唐草文이 조각되었으며 乳廓은 네 곳에 배치되었으며 上帶에 接着되지는 않았으며 자기 九乳가 있다. 鍾腹에는 오직 乳廓間地에 둥근 撞座 二개가 對稱적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飛天紋은 省略하였다. 形態도 아담하지 못하고 彫刻도 鮮明하지는 못하다. 年代는 麗末·鮮初의 것으로 推定된다. 麗末鍾에 보이는 上端緣의 三角立帶는 또한 省略되었다. (一九七二年 七月 東國大博에서 調査)

〔附錄〕

(I) 新羅鐘梵 破片 (圖版 8)

一九七〇年 六月 서울市에 居住하는 崔희열씨가 東國大博物館에 持參하여 同館이 買入한 小片이다. 크기는 二〇 cm × 一六·五 cm 인데 多幸한 것은 그 形態에 미루어 下緣端의 一片임이 밝혀졌으며 (厚 六 cm)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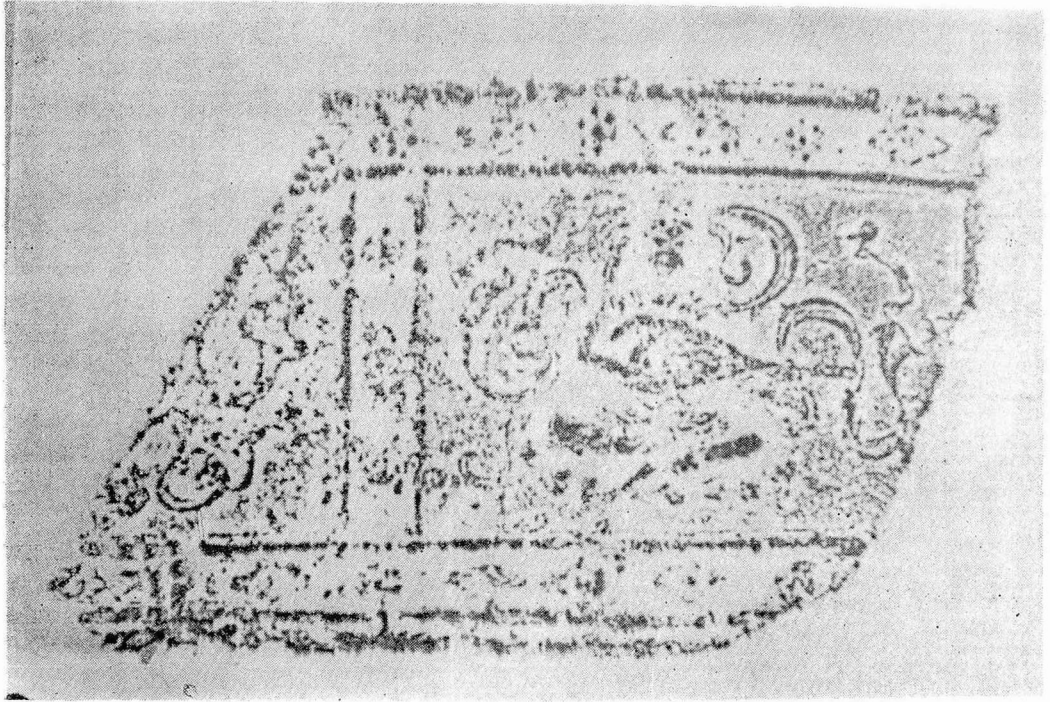


圖 8. 新羅梵鐘破片拓本

라서 下帶(幅 十一·五 cm)紋의 一部인 奏樂飛天紋이 設세 유려한 手法으로 彫刻되었던 原狀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 같은 下帶의 飛天紋은 貞元 廿年銘 禪林院鐘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出土地가 江原道 原州附近이라고 할뿐 詳細를 알 수가 없었다. 年代는 彫紋에서 미루어 新羅統一期인 九世紀頃으로 추정되며 鐘의 규모도 相當하였을 것이다.

(II) 東國大學校所藏 鐵鍾·鐵鍾의 出土는 지난 十年 사이에 若干例가 있었으나 거의 小鍾이었으며 腐蝕이 심하여 細部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 遺品은 비록 龍鈕 甬筒이 없어져서 頂上에 大小二孔만이 남았으나 鍾身에 있어서는 四乳廓(各九乳)과 上下帶와 相對하는 二개의 圓形撞座가 乳廓間下部에 어림없이 남아 있다. 忠北 堤川地方의 出土라 하는데 現高 五十四 cm 上徑 二十九 cm 上帶幅 六·九 cm 下帶幅 七 cm 撞座徑 十四 cm 이다. 鐵鍾例로서는 中鐘의 크기로서 保存 또한 良好하다. 一九六七年頃 東國大博物館이 所藏한 것이다.

註

- ① 이 銅鐘과 이와 同伴出土되었다고 傳하는 破品의 癸卯銘은 모두 拙編「金石遺文」第三輯(「考古美術資料」第二十一輯 一九七二年一月刊)에 收錄되어 있다.
  - ② 拙稿: 「新羅梵鐘의 新例」- 智異山實相寺出土(「歷史學報」第三十四輯 一九六七年 六月刊)
  - ③ 拙稿: 「在日新羅無銘梵鐘二口」(「歷史教育」第十一、二十合輯 一九六九年 四月刊)
  - ④ 金永培: 「淸州表泉洞出土 金銅菩薩立像과 銅鐘」(「考古美術」一〇五號 一九七〇年 三月刊)
  - 拙編: 「金石遺文」第三輯「己丑銘殿子」
  - ⑤ 湖巖蒐集: 「韓國美術特別展」(國立博物館 一九七一年刊) 圖版九 同解說 參照
  - ⑥ 拙編: 「金石遺文」第三冊 一五〇頁「貞祐十年銘 翠岳寺殿子」一九六七年十一月 出土라고 傳한다.
  - ⑦ 李永樂: 「太安二年銘 高麗銅鐘과 小鐘一口」(「考古美術」一〇九號 一九七二年三月刊)
- (附記) 一九七二年初에 江原道 堤川附近에서 銅鐘 新例의 소식이 있어 百方問議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후 이 鐘이 釜山으로 옮겼다는 소식이 있던바 慶州博物館 姜友邦氏의 書信에 의하면 「新羅末 高麗初로 보이는 銅鐘을 釜山某氏가 所藏하고 있는바 四天王이 浮彫되어 있고 下帶에는 波濤文에 銅鏡에서 보는 물고기가 머리부분을 내밀고 있는 매우 興味있는 鐘인바 銘文은 없다」고 하였다. 앞으로 조사를 기하겠다. (一九七二年十月三日)